삼한사온 대신 롤러코스터 추위 온다

한반도 북쪽 찬공기 고기압이 차단
공기흐름 정체되는 '블로킹 현상'
한파 주기 불규칙해 삼한사온 실종
올 겨울 기온 낮고 강수량 많을 듯

"내 점수는 과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2일 오전 광주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조심스럽게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해 광주·전남지역에는 기습한파가 한 두 차례 더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한파가 불규칙적인 주기로 찾아왔다 물러가는 '롤러코스터' 겨울 날씨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최저기온은 옥과가 영하 8.4도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곡성 영하 8.2도 ▲영광 영하 8도 ▲광양 영하 6.2도 ▲강진·광주 영하 5.5도 ▲여수 영하 5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 5~9도 안팎 분포를 보였다. 이는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다.

이달 들어 12일 현재까지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3.3도로, 평년기온보다 2도 가량 낮았다.

이같은 추위가 몰아닥친 것은 우랄산맥 부근에 형성된 상층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우리나라 부근 상층의 찬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사흘 정도 춥고 나흘은 상대적으로 포근한 '삼한사온'(三寒四溫) 기후가 나타나지만 올해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는 셈이다.

삼한사온은 한반도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 등 주변 기류가 원활하게 흐를 때 나타나는데, 올해는 공기 흐름이 정체되는 '블로킹 현상'으로 한반도 북쪽의 찬공기가 고기압에 막혀 한파의 주기가 짧아져 삼한사온이 실종된 것이다.

이번 한파는 14일까지 이어지다가 15일에는 기세가 다소 꺾일 전망이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눈예보가 있는 16일과 17일 기습 한파가 찾아왔다가 19일부터 풀리는 등 수은주가 오르락 내리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주간 날씨를 보면 다음 주(18일~24일)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기온(3.4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는 저기압 영향으로 평년(평년기온 2.5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올 겨울은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낮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날이 상대적으로 많겠다. 예상강수량(26.1㎜)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습한파가 찾아오는 주기가 불규칙해 건강·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올 보험사기범 전년비 두배 증가

광주경찰 보험범죄대응 백서 발간…941명 검거·피해액 260% 급증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검거된 피의자는 941명, 적발금액은 176억원으로, 각각 전년도 동기간 대비 134.1%, 25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청 소속 보험범죄연구회 주관으로 올해 보험범죄 대응활동을 정리한 '보험범죄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자동차 사고 입원율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한방병원은 전국 304개중에 103개가 집중돼 있어 경찰의 특별단속 개시 배경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현재에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 20개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수사가 시작되며 올해 6월 104개로 정점을 찍은 한방병원 수는 11월 현재 100개 이하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58.86%이었던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2017년 3분기에는 55.81%로 3.1% 포인트 떨어지는 등 감소세다. 생명보험협회의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도 2017년 3분기 증가율 5.9%로,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방병원 보험금 청구건수 및 청구액, 정액 보험금 지급도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백서를 발간한 보험범죄연구회는 전국 최초로 지난 4월28일 창립됐으며 보험범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광주청 제2부장인 윤명성 경무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광주청, 금융감독원, 광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보험사 특별조사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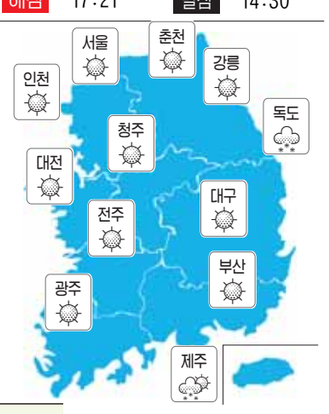
해뜸 07:32 해짐 17:21 달뜸 02:35 달짐 14:30

'꽁꽁'

바람이 매서워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춥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4/3	보 성	맑음	-5/2
목 포	구름많음	-3/2	순 천	맑음	-3/3
여 수	맑음	-3/3	영 광	눈 온 뒤 갬	-6/1
나 주	구름많음	-5/3	진 도	눈 온 뒤 갬	-2/4
완 도	구름많음	-2/3	전 주	맑음	-7/1
구 례	맑음	-5/2	군 산	맑음	-6/1
강 진	구름많음	-4/3	남 원	맑음	-7/1
해 남	구름많음	-4/3	흑 산 도	구름많음	1/4
장 성	눈 온 뒤 갬	-5/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먼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먼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3:27	10:41
	16:03	22:55
여수	11:52	06:05
	--:--	17:59

◇ **생활지수**

뇌졸증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좋음

◇ **주간 날씨**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4/6	-6/1	0/4	4/2	-3/6	-2/6	-2/6

광주 고교 수업료·입학금 10년 연속 동결

광주지역 고교생 수업료와 입학금이 10년 연속 동결될 전망이다.

전남은 전국 최초로 내년 전체 고교생 입학금을 면제키로 한데 이어, 수업료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2018학년도 광주시 공·사립학교 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을 고시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수업료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연속 동결이다. 입학금은 2003년부터 15년째 인상하지 않고 있다.

광주의 고교 연간 수업료는 ▲비특성화고 110만4000원~134만8800만원 ▲특성화고 59만4000원~130만9200원 ▲방송통신고 13만5600원이다. 입학금은 특성화고 1만7200원이며 비특성화고는 지난해부터 면제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고교생(2만명)의 입학금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자율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입학금 면제를 위해선 조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의 고교 입학금은 지역 구분에 따라 1만1800원~1만5900원선이다. 연간 수업료는 ▲비특성화고 63만6000원~115만2000만원 ▲특성화고 43만4400원~62만76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부족 등으로 교육재정이 어렵지만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료를 동결했다"며 "수업료 동결에 따른 세입재원 부족액은 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충당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방치됐던 옛 북광주등기소 자활센터로 부활

북구 22억 투입 리모델링 내년 2월 공동판매장 개소

지난 수년 간 폐건물로 방치돼 왔던 옛 광주북광주등기소가 지역자활센터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으로 거듭난다.

12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구는 내년 2월 말까지 예산 22억9000만원을 들여 북구 우산동 옛 북광주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으로 조성한다.

앞서 지난 2월 북구는 해당 건물·토지를 매입한 뒤 지역자활센터 3곳의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했었다.

지역자활센터 소속 저소득층 주민들이 직접 만든 각종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 면적 668㎡)다.

지하 1층엔 물품창고가, 지상 1층·2층엔 자활근로사업단 매장·생산품 판매장·체험학습 프로그램실·교육장 등이 각각 들어선다.

구는 이번 공동판매장이 조성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자활센터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